

프롤로그

#Part 1

절망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와 게걸스럽게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렇게 악몽이라 믿으며 깨기를 바랐건만, 한 줌의 재가 되어 내 품에 안긴 너는 현실을 똑똑히 보라 하는 것만 같았다. 현실로 이끌려 나오자 내리쬰는 햇빛의 따뜻함, 겨울을 지나 온기를 가진 공기, 훌쩍이는 사람들이나 작게 웅성거리는 말소리, 내 손에 들린 너의 묵직함이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제야 실소와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귓가에서 보드랍게 사운 거리던 네 웃음소리, 날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새벽까지 함께 미래를 그리던 나날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아직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목구멍에 무언가 턱 걸린 것처럼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 슬픔이 온몸을 옥죄어 온다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네가 들를 곳이 있다고 먼저 가라고 한 그날, 너는 약에 취한 3계층 사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에 쇳덩이가 떨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3계층이라는 단어는 간악하게 웃으며 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나를 나락으로만 끌어내렸다. 머리를 조아리며 그저 하루하루 목숨만을 부지하는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내가 감히 부귀영화를 누리려 해 징벌을 받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이건 잔인하기 그지없지 않은가. 그저 나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마저도 너에게는 과분한 것이라, 너 때문에 죄 없는 이가 희생당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귓가에 웅웅 울리다 사라지는 소음들 사이에서 작은 훌쩍임만이 선명하게 들린다. 그래, 너를 닮아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헤더. 죽음을 겪기에는 너무 어리고 여린 아이. 주체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을 닦아내고 작고 보드라운 손을 잡았다. 헤더를 지켜내려면 내가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 이 한 몸 불사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헤더만은 나같이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웃음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Part 2 (일과 전)

장소	인물	내용
로비	플레이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일까? 과거의 망령들은 거머리처럼 붙어서 늘 나를 옥죄었고, 내가 쥔 것들은 모두 손가락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나를 떠나갔다. 예정보다 빠르게 복귀 신청을 했다. 끝없이 나를 삼키려는 공허함을 잊으려면 의식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꼭 눌러 그선을 지우면 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는 내게서 지워지지 않았다. 복지부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정보부는 며칠 전과 다를 바가 없

		<p>었다. 끝없는 힘을 보여주듯 여전히 건물은 웅장했고, 대부분 1계층으로 이루어진 동료직원들은 내게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전하고는 제 할 일을 하러 갔다.</p> <p>어머니의 배려였을까? 나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무실을 지나쳐 다른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잘된 일이었다. 차마 그의 흔적이 남은 그곳에서 일할 용기가 없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으며 꺾 주먹을 쥐었다.</p> <p>모퉁이를 돌자 나의 새 사무실 앞에 나와 비슷한 검은 머리를 가진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정보부 부장이자, 나에게 자신의 딸 (플레이어 이름)의 삶을 살게 해준 내 삶의 메시아, 나의 진짜 어머니.</p> <p>그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p>
	힐다	<p>아가, 더 쉬었다가 오는 게 어떨겠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건 너 자신이란다.</p> <p>조금 더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 네 고집을 그 누가 꺾겠어.</p> <p>당분간은 일을 줄여줄 테니 너부터 먼저 챙겨. 헤더를 위해서라도 네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p> <p>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딜런은 열정 있고 씩씩한 사람이니 금방 잘 지낼 수 있을 거야.</p> <p>(플레이어 이름), 그 누구의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p>
	플레이어	<p>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이고 자리를 떴다. 그래, 그의 말대로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p> <p>나는 표정과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사무실의 문고리를 돌렸다.</p>
사무실	플레이어	<p>위치는 바뀌었지만,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깔끔한 사무실이 었다. 한가지 바뀐 점을 꼽자면 안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뿐.</p> <p>큰 체격과 밝은 분위기를 가진 남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준수한 외모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자신감은 1계층 인물의 표본이라고 해도 무방한 인물이었다.</p>
	딜런	<p>(플레이어 이름)님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p> <p>일 처리를 굉장히 완벽하게 하셔서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플레이어 이름)님을 제 롤모델로 삼아도 될까요?</p> <p>아, 워낙 꼼꼼하시니 도움이 필요하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소소한 거라도 괜찮으니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가령 밥친구나 술친구라던가?</p>

	플레이어	대체 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딜런은 강아지처럼 눈을 초롱초롱 밝히며 업무 시작 전까지 쉴 틈도 없이 말을 걸어왔다.
--	------	---